



호랑이는 내친구

vol.199 2020

05

www.kiatigers.co.kr

KIA 타이거즈



그라운드 포커스

개막전/연습경기 화보

커버스토리

긴터널을 지나 드디어 '플레이 볼'

스포츠라이트

'타이거즈 최다 홈런' 눈앞 나지완

SNS 인터뷰

'중원을 호령하라' 돌아온 김호령

I LOVE TIGERS

KIA 타이거즈 굿즈(상품)의 세계

SNS 핫클릭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슈

타이거즈 뉴스

KIA 타이거즈 앱 서비스 시작

T-LIFE

트로트 열풍

건강 칼럼

밝은안과21병원·MK한방병원

퀴즈 & 이벤트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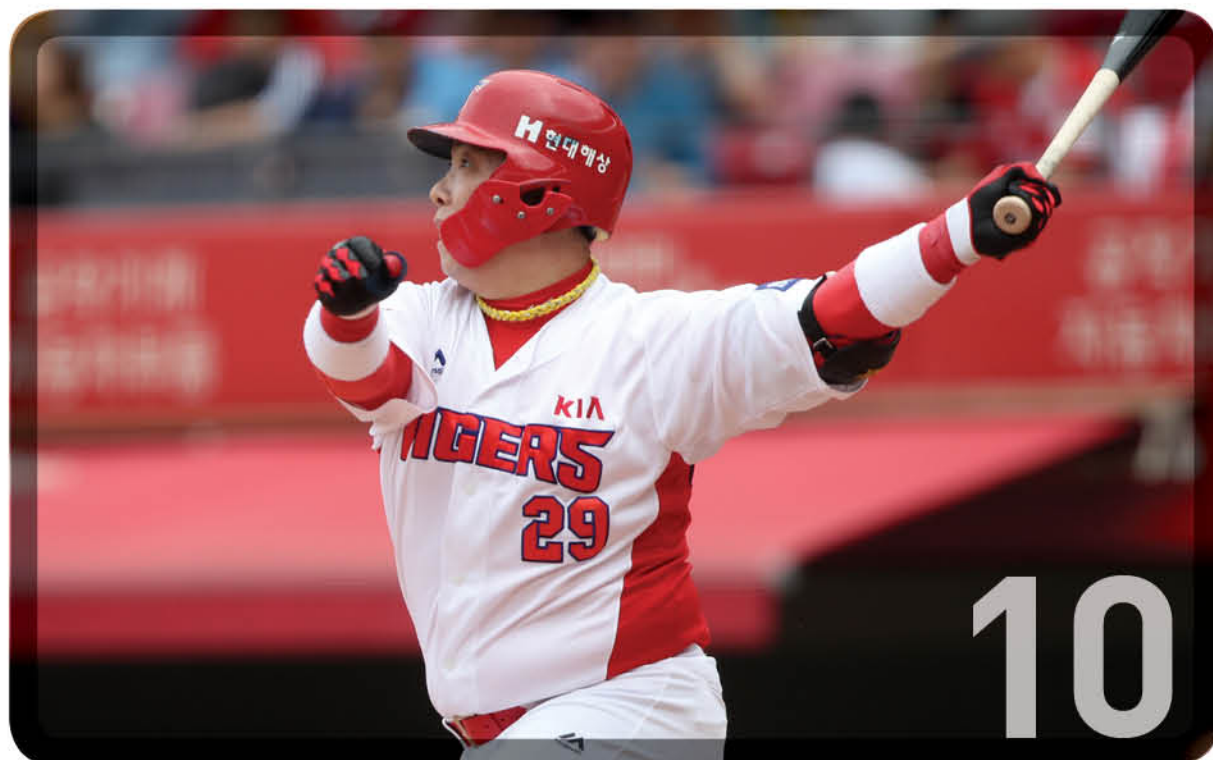
음성인식 제어 · 테마형 클러스터 · 공기청정 시스템 · 하차후 최종 목적지 안내 · 카투홀

The Power to Surp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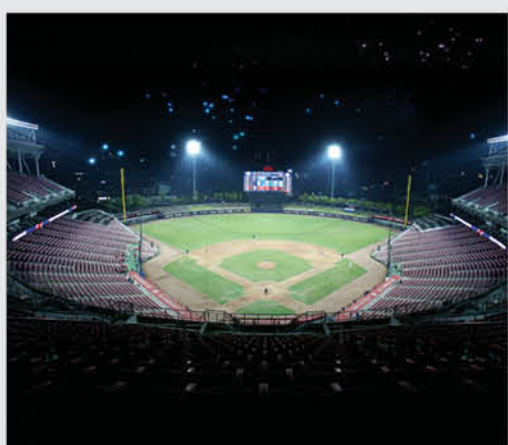
AUTO Q 이제은행을 위한
자동차 금융 서비스
02-0000-3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illegible]



CONTENTS



드디어 개막이다. 역대 가장 긴 '봄'을 보낸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투혼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달 넘게 늦어진 KBO리그이지만,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윌리엄스 감독은 길어진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KIA타이거즈 모든 선수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전력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야구를 펼쳐보이고 있다. KIA타이거즈의 질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04 그라운드 포커스 _ 개막전/연습경기 화보

06 커버스토리 _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플레이 볼'

10 스포트라이트 _ '타이거즈 최다 홈런 '눈앞' 나지완

12 SNS 인터뷰 _ '중원을 호령하라' 돌아온 김호령

16 I LOVE TIGERS _ KIA타이거즈 굿즈(상품)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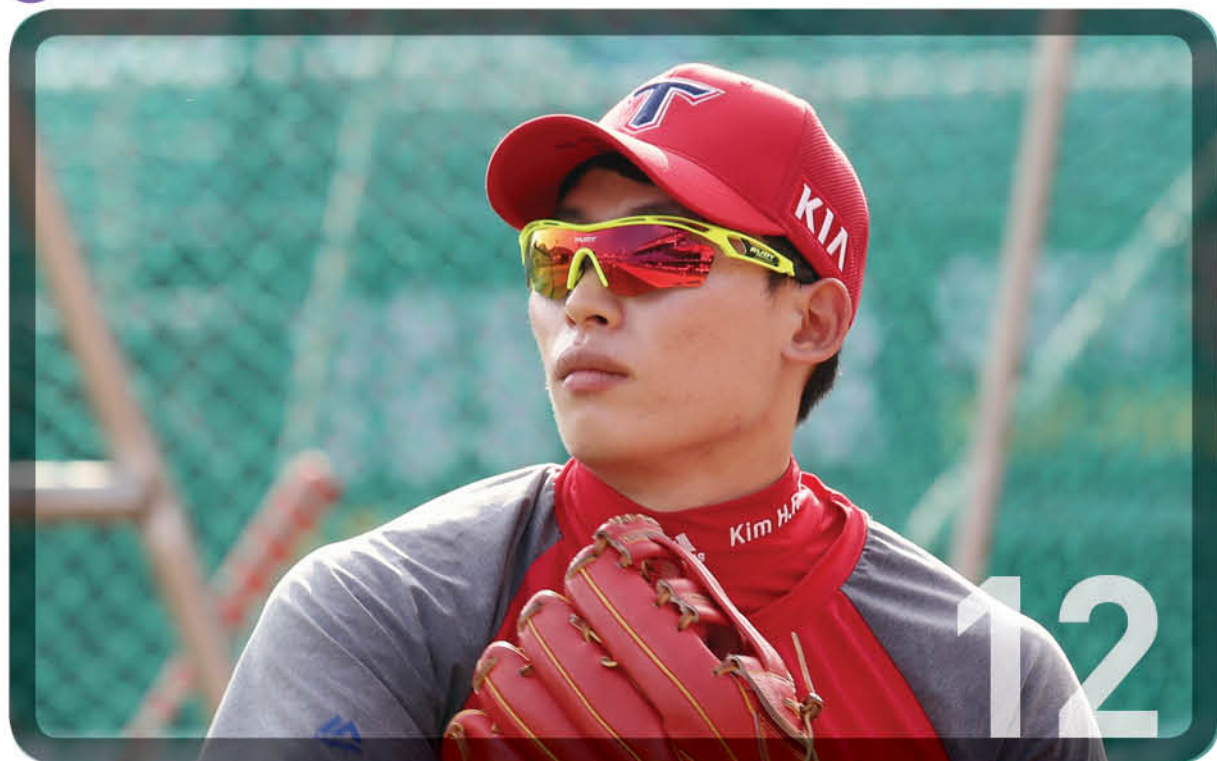
18 SNS 핫클릭 _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슈

20 타이거즈 뉴스 _ KIA타이거즈 앱 서비스 시작

21 T-LIFE _ 트로트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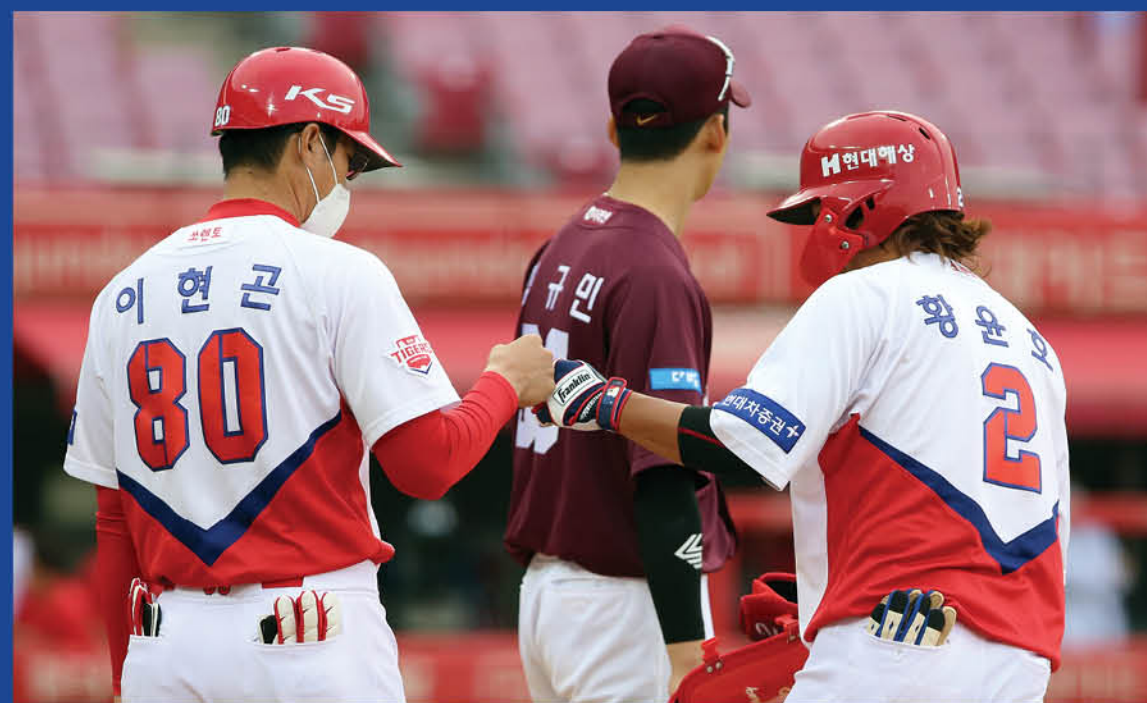
22 건강칼럼 _ 밝은안과21병원·MK한방병원

24 퀴즈 & 이벤트 _ 틀린 그림 찾기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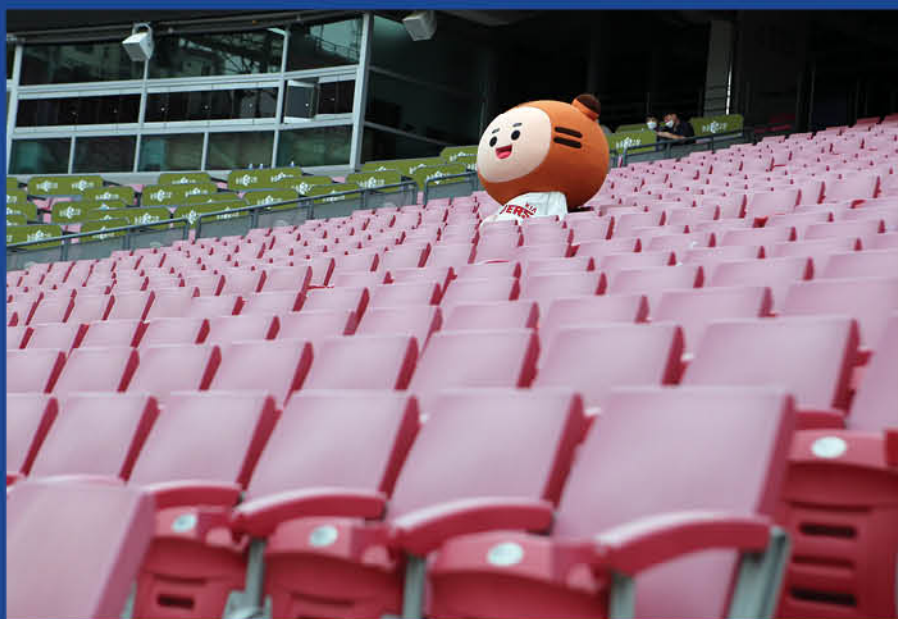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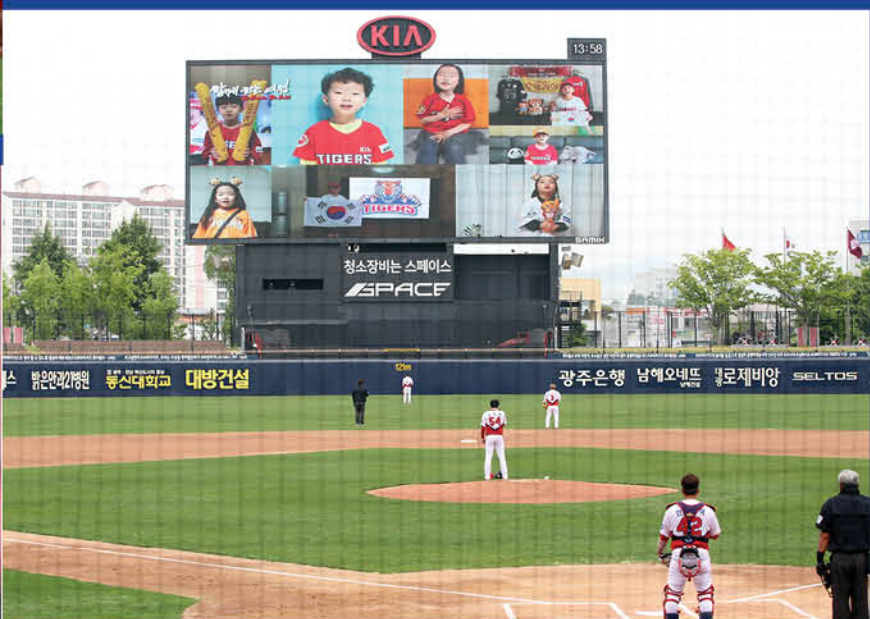
그토록 듣고 싶었던 외침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개막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온 덕분이다. 한층 더 끌어올렸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단에게 말했다. 이제 상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만 남았다. 비록 아직 관중 없이 펼쳐보이는 경기이지만, 앞으로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관중 입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말이다. 긴 시간 지치지 않고 계속질주는 이제 시작됐다.



BALL

스 필드에 올려퍼졌다. KBO리그
표정은 밝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길었던 봄' 동안 선수들은 기량을
의 전력을 파악할 시간을 충분히가
아 있다.

타이거즈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되는 그 날, 아낌 없는 박수와 환호
고 달려온 KIA타이거즈 선수들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플레이 볼'



맷 윌리엄스 감독이 디자인하는 '올 뉴 타이거즈'가 서서히 배일을 벗고 있다. 미래를 내다봤던 감독 선임이 벌써부터 기대감을 품게 만든다.

올해 광주 KIA챔피언스필드에서 정식으로 '플레이 볼!'을 외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KBO리그는 긴 터널을 지나야 했다. 각 구단 선수단은 2월 초부터 시작한 1, 2차 스프링캠프에 이어 국내에 돌아와서도 홈구장에서 철저히 격리되어 훈련에만 매진해야 했다. 시범경기 일정이 모두 취소되고 개막도 밀리면서 이른바 '3차 전지훈련'이라는 표현까지 흘러나왔을 정도다. 야구 갈증이 극에 달했던 만큼 '플레이 볼'이라는 외침이 어느 때보다 반갑다.

윌리엄스 감독, 전력 파악에 충분한 시간

야구가 없어 허전했던 봄에도 윌리엄스 감독은 치열했다. 새로운 감독이 구단의 특성과 선수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고, 선수단 운용 방안까지 수립하려면 보통 몇 달이 걸린다고 한다. 훈련과 실전을 소화하면서 선수들과 거리를 좁히고, 경기 중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마다 선수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시즌 중



반 혹은 한 시즌을 통째로 허비하는 경우도 있다. 마무리캠프와 스프링캠프에 이어 오롯이 선수단과 보낼 수 있는 39일을 추가로 얻은 윌리엄스 감독은 전력 파악에 공을 들였다.

윌리엄스 감독이 처음 지휘봉을 잡고 한 일은 리셋이었다. 편견부터 지웠다. 마무리캠프부터 참관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고 몸값이나 이름값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선수를 동등하게 바라봤다. 스프링캠프에 역대 최다 인원인 총 74명(선수 54명, 코칭스태프 20명)이 합류한 점, 전지훈련 시작 후 2주 만에 양현종을 주장으로 선임한 점은 윌리엄스 감독의 지향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변의 조언이나 추천도 중요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뒤에야 모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원점에서 시작' 동기 부여... 선수들 의지도 업

윌리엄스 감독의 편견 삭제는 바로 변화로 나타났다. 선수들의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동등한 출발선에 선 선수단은 몸 풀기부터 전력을 다했다. 김기태 전 감독이 매 비시즌마다 체력테스트로 선수들





의 의지를 다잡았다면 윌리엄스 감독은 자율을 보장하면서 선수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 ‘할 땐 하고 쉴 땐 쉬자’라는 말처럼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으면 집중력을 높였고, 휴식도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체력을 충전했다. 전지훈련지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쇼핑을 하던 선수들도 횡수를 줄이고 휴식을 늘렸다.

잠재력을 보일 기회를 잡지 못했던 어린 유망주들이나 신인급 선수들도 변화에 올라탔다. ‘선배들이 있으니 백업이라도 노리자’라는 생각 대신 ‘이참에 내 자리를 잡아보자’라는 각오를 다지기 시작했다. 어린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려고 하자 베테랑들도 위협을 느끼고 글러브를 잡았다. 마무리 투수 문경찬은 “감독님이 보장해주는 자유가 오히려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든다. 나는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성향인데도 전지훈련 때부터 도저히 방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외야수 이우성도 “엄청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내가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것만 같다. 더 생각해서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연습경기 통한 '윌리엄스 색' 입히기 성과

선수들 사이 무언의 경쟁에 불이 붙자 윌리엄스 감독은 가능성을 체크했다. 운영팀과 전력분석팀의 보고서를 참고하되 자신의 두 눈으로 마지막 도장을 찍었다. 부동의 4번 타자 최형우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3번 타순에 배치됐고, 나지완이 네 번째 타자로 나섰다. 지난해 주전 중견수로 올라섰던 이창진이 부상으로 조기귀국한 뒤에는 최원준과 김호령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 한승택, 백용환 등 안방마님도 번갈아 내세우면서 묘한 경쟁 심리를 유도했다.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과 경쟁에 선수들이 지칠 때쯤엔 이벤트성으로 양현종-임기영 감독 데뷔전을 개최해 선수단에 '재미있는 야구'를 선물했다.

전지훈련과 팀간 연습경기 일정을 마칠 때마다 몇몇 선수들에게 '새로운 감독님 스타일이 어떤 것 같으세요'라고 물었다. 선수들에게서는 예외 없이 "장난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프로로서 매일 경쟁에 치여 살면서 힘든 적이 많았는데 윌리엄스 감독님이 부임한 뒤로는 캐치볼도 재미있다. '야구를 재미있게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한 선수도 있다. 야구를 즐기고, 그 안에서 효율을 찾는 윌리엄스 감독의 색깔은 벌써 타이거즈 선수단에서 발현되고 있다.

유난히 길었던 봄이 지난다. 타이거즈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글. 스포츠월드 전영민 기자/사진. 홍보팀>



올 시즌 대기

나지완·양현종 타이거즈



야구하면 기록을 빼놓을 수 없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기록은 팀 성적에 반영된다. 올 시즌 KIA타이거즈는 대기록을 앞두고 있다. 야구 명문구단답게 팀 기록은 물론 선수 개개인의 다양한 대기록을 노린다.

가장 먼저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나지완의 기록이다. 타이거즈의 프랜차이즈 스타 나지완은 타이거즈 역대 통산 최다 홈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지완은 지난 시즌까지 홈런 204개를 달성했다. 타이거즈 타자 역대 최다 홈런 타이 기록까지는 단 3개. 앞으로 홈런 4개만 추가하면 타이거즈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분위기로 보면 시즌 초반에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12시즌 동안 두 자릿수 홈런을 친 햇수는 9년이다. 한 시즌당 평균 홈런 수는 17개나 된다.

최근 흐름도 나쁘지 않다. 2016년 25홈런, 2017년 27홈런, 2018년 26홈런, 2019년 6홈런을 작성했다. 여기에 올 시즌 연습경기에서 팀 내 가장 많은 홈런 싸 올리며 관창은 감각을 드러냈다.

역대 타이거즈 통산 최다 홈런 기록은 김성한 전 감독이 작성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첫 30홈런(1988년)의 주인공인 김성한 전 감독은 홈런 30개 시대를 연 프로야구의 대표적인 홈런타자다. 타이거즈에서만 선수 생활을 한 김 전 감독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통산 207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투수 중에서는 양현종이 전설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136승을 거둔 양현종은 만일 올 시즌 14승을 확보한다면 꿈에 그리던 150고지를 밟게 된다. 150승은 '국보' 선동열(146승) 전 감독도 달성하지 못한 영역이다. 국내리그에서 150승 고지를

기록 쏟아진다

거즈 전설 등극 '눈앞'

뺏은 투수는 송진우(210승) 코치, 정민철(161승) 단장, 이강철(152승) 감독이 전부다.

양현종이 150승을 넘어 153승에 도달하면 KBO 역대 3번째 다승 투수가 된다. 이는 타이거즈 최다승이다. 2017시즌에는 20승, 2018시즌에는 13승, 2019시즌에는 16승을 거두고 있기에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양현종은 7년 연속 10승(5번째), 6년 연속 180이닝 소화(2번째), 7년 연속 100탈삼진(7번째), 1,600탈삼진(5번째), 2,000이닝 투구(7번째) 등 기록도 바라보고 있다.

최형우의 연속 기록도 빼놓을 수 없다.

최형우는 13년 연속 10홈런(7번째)·100안타(6번째)와 8년 연속 200루타에 도전한다. 이 기록들은 2008년부터 지켜 온 업적이다. 시즌당 평균 25개 홈런과 149안타를 작성한 결과다.

또 최형우는 400, 2루타(4번째), 3,200루타(6번째), 300홈런(12번째), 1,000득점(16번째), 1,300타점(4번째) 기록도 앞두고 있다.

이밖에 KIA는 김주찬이 150홈런(47번째), 2,000안타(12번째), 400, 2루타(4번째), 300루타(16번째), 1,100득점(8번째), 400도루(5번째), 7년 연속 100안타(32번째)을, 나주환이 1,500경기 출장(48번째), 100홈런(95번째), 1,000안타(97번째), 500타점(95번째)을 노린다.

팀 기록에는 투수진이 2,500승(2번째), 1,100세이브(3번째), 3만 탈삼진(최초)을, 야수진이 2만3,000득점(2번째), 4만4,000안타(2번째), 4,200홈런(2번째), 6만4,000(2번째), 2만1,000타점(2번째), 4,600도루(최초)를 도전한다.

<글. 무등일보 한경국 기자/ 사진. 홍보팀>



중원을 호령하라 김호령

'호령, 호령~ 김호령'

그가 돌아왔다. KIA타이거즈 중원을 누비는 '미친 수비' 김호령이 군 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했다. 지난해 복귀 후 부상 탓에 재활의 시간을 가진데다, 손가락 부상이 겹쳐 플로리다 스프링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던 김호령은 자체 연습경기에서 홈런으로 복귀를 알렸다. 그리고 김호령표 수비를 뽐내며 올 시즌을 기대케 했다. 개막을 앞두고 허리 부상이 재발하며 잠깐 휴식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라운드에 복귀해 팬들에게 다시 한 번 '미친 수비'를 보여줄 각오를 품고 있다.

(이번 달 이벤트 당첨자 'imtheyj1121'님과 '1983.red'님 그리고 'hyeongseon1603'님 이상 세 분께는 김호령 선수의 친필 사인볼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리/사진. 홍보팀>

Q. ID : kia_jjeong - 김호령 선수에게 5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A. 특별한 의미는 없고 처음에 받았던 번호가 53번이예요. 제대해서 다른 번호를 달고 싶었는데 이미 선배님들이 원하는 번호를 달고 계셨어요. 53번은 준태 형이 달고 있었는데 번호를 써도 된다고 해서 달게 됐어요. 좋아하는 번호는 27번이예요. MLB에서 뛰는 마이크 트라웃인데 그 선수의 번호라서 27번을 좋아해요.

Q. ID : emily_seoyeon - 김호령이 제일 좋아하는 애칭 또는 별명은?

A. 호령존? 호령존이라는 단어 정말 좋아해요.

Q. ID : imtheyj1121 - 김호령 선수에게 호령 존이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A. 팬들께서 만들어주신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저 감사 할뿐입니다!

Q. ID : bomin_vo_ov - 호령호령 김호령~~~ 응원가 마음에 들어요??

A. 바뀐 응원가는 군대 가기 전 2017년에 들어봤어요. 사실 바뀌기 전 응원가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저만 보면 선수들이 모든 사람들이 호령호령~하면서 놀렀거든요(웃음). 근데 팬들께서 그 응원가를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계속 듣다 보니 중독성도 있고. 지금은 예전 응원가도 좋아합니다!

Q. ID : 199301aaa - 군 복무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연습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딱히 무엇을 중점을 두고 한 건 없었어요. 타격 품을 많이 생각했는데, 계속 바꾸다 보니 헛갈리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지금 치는 스타일로 치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못쳤었죠. 이렇게 타격하고 싶어 연습을 많이 했어요.

Q. ID : @jjjiwon2 - 군 복무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은? (자기 자신이나 야구에 대한 생각, 팀 분위기, 선수들 등등)



자유로운 답변 좋아요)

A. 제가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으니까. 간절한 마음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도 더 먹고 하니까 시합을 못 뛰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간절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Q. ID : _yohehene - 타이거즈에 오면 가장 보고 싶었던 선수분이 있는 지 궁금해요!

A. 그냥.... 딱히 없는데(웃음) 매일 TV로 얼굴을 보니까 누구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같이 야구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ID : junguk_1011 - 팀메이트 중 가장 친한 선수는?



A. 한 명을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친해요. 저희 팀에 또 92년생이 많거든요. 준영이나 영창이, 승택이, 윤호 두루두루 다 친한 것 같아요.

Q. ID : 06_gyeol1250 - 선배들 중에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A. 다 존경하죠(웃음) 누구를 꼽아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선배님들 모두 존경합니다.

Q. ID : 04.79.90 - 호령선수와 동갑인 저도 올해가 느껴지는 의미가 그래도 조금은 다른데, 호령선수의 29살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A. 딱히 29살이라고 해서 큰 의미가 생기진 않네요. 마음은 아직도 20대 초반 같은데, 벌써 29살이라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똑같이 절실하게 야구 하고 있습니다!

Q. ID : damdam_kia - 팬과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A. 군대에 있을 때 팬 두 세 분께서 많이 찾아와주셨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또 훈련소 있을 때 편지 써주신 팬분들도 되게 고마웠거든요.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Q. ID : v12_2018 - 팬들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나는 선물은 어느 것인가요?

A. 군대에서도 생일일 때 큰 박스로 해서 선물꾸러미 주시고 이런 것들 생각나네요. 정말 모두 고마워서 딱히 한 가지 고르기가 어렵네요. 떡이나 과일 이런걸 주시기도 했고 여름엔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Q. ID : yoono_00 - 야구하기전에 다른 장래희망은 없

었나요?

A. 원래 축구를 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전학을 가려했어요. 그때 마침 하룻길에 코치님이 집에 가는 친구들을 한 명씩 부르곤 했어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죠. 운동장에서 스윙해보고 공 던지라고 시키셨어요. 막상 해보니 재미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3학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처음엔 내야수랑 투수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Q. ID : space_0824 - 지금까지 야구를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아 내가 야구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에 드시나요??(항상 호령 선수님 응원합니다!!)

A. (고민하다) 제가 야구를 잘하고 있을 때? (웃음) 타격이 안 좋다 보니까 수비할 때보단 타격을 잘할 때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Q. ID : dlrlrkdchl - 아 그리고 얼마 전 흥백전에서 양현종 선수 상대로 홈런을 치셨는데 그때 상황과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A. 현종이 형 볼이 좋으니까 빠른 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체인지업을 던지시더라고요. 떨어지는 걸 보고 쳤는데 그게 넘어갔어요. 넘어갈줄 몰랐는데 얼떨결이기도 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현종이형 볼 치기 쉽지 않았는데 그게 넘어갈 줄은...

Q. ID : yongjae_1103_ - 가장 까다로운 투수는?

A. 많은데요?(웃음) 다른 팀 외국인 선수들은 대부분 어려운 것 같고요. 마무리 투수들도 대부분 볼이 좋아서... 제가 몇 명 말하기 너무 어렵네요. 많기도 하고요. 잘 던지는 투수들은 정말 많아요.

Q. ID : jimin.lee - 이번 시즌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호령 선수 17시즌부터 항상 응원하고있습니다!

A. 지금도 계속 신경 쓰고 부분인데, 선구안이 안좋으니 타석에서 볼을 잘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정확하게 공을 맞히는 것. 아무래도 타격 쪽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 그쪽을 신경쓰게 돼요.

Q. ID : ingyun11 - 이번 시즌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A. 수치적인 목표는 정말 없고 다치지 않는 것. 다치게 되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아요. 안 아프고 야구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1군에 있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Q. ID : ju_ho2_2 - 가장 도전하고 싶은 타이틀은?

A. 출루율이죠. 출루율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정후 선수나 박민우 선수를 보면 볼을 정말 잘보더라고요. 볼 스트라이크 잘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저는 아직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Q. ID : chichiyagaddol - 호수비를 위해 특별히 더 준비하는 연습이 있나요?

A. 아니오(웃음) 훈련할 때부터 어려운 타구가 오면 웬만하면 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 같아요. 시합할 때도 별다른 생각 안 하고 공이 오면 잡아야겠다고만 생각해요. 그냥 잡는것뿐인데...

Q. ID : kingodgyutae -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수(마이크 트라웃)를 정말 좋아하고요. 최형우 선배님. 타격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걸 본받고 싶어요.

Q. ID : s.t.m - 본인이 생각하는 팀 내에서 수비 실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궁금해요 (본인 포함 ㅎㅎ)

A. 다 아시겠지만 팀 밖에서는 박해민 선수가 수비 정말 잘하시고요, 팀에서는 창진이 형도 잘하시고 원준이도 잘해요. 지금은 2군에 있지만 박정우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수비 정말 잘해요.

Q. ID : hessy0214 - 광주에서 김호령이 폭빠진 '김호령 맛집'은?

A. 신안동에 진식당이라고 있어요. 집이랑 거리가 있어서 자주 가진 않는데 갈 때마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Q. ID : dandy__tomato - 야구 경기 없는 쉬는 날에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A. 요새는 집에만 있죠. 게임을 하거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데 예전에 많이 해서 요새는 잘 안 해요. 나가기도 조심스러우니까 집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Q. ID : hyeongseon1603 - 내가 여자였다면 이선수랑 사귀었을것 같은 선수는?

A. 없는데(박장대소) 아.. 진짜 없어요.

Q. ID : 01.05.03.z -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가 있다면?

A. 요새는 '쿨'의 <아로하> 자주 들어요. 요새 조정석님이 불러서 다들 많이 듣잖아요. 가끔씩 꽃히는 노래가 생기면 그것만 듣는 편이에요.

Q. ID : seullang07 - 챔필로 돌아온 기분은?

A.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오고 싶었고, 군대에서도 계속 챔필에 돌아오고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기대되고 설렙니다.

Q. ID : 1983.red - 와일드카드전에서 마지막 수비때 호령선수 찐 팬이 되었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공을 던졌었는지 궁금해요

A. 주자 만루 상황이라 주자가 홈에 가는걸 막으려고 앞에 있었어요. 타구가 뒤로 오는 순간 저도 끝났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주자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끝까지 공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 경기 이후로 포기하지 않는 플레이를 해야겠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Q. ID : xotjd9798 - 김호령에게 KIA타이거즈란?

A. 행운? 거의 끝번호로 지명돼서 어렵게 들어왔잖아요.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뽑아주셔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와서 좋게봐주신 것도 운이 좋았고.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Q. ID : petasos - 타이거즈팬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A. 운동장에서 열심히 야구하고, 야구장 안이나 밖에서 모두 성실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호걸이' 우산, 핸드폰

KIA타이거즈 굿



굿즈(Goods)는 아이돌, 영화,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 스포츠, 유명인 등 문화 장르 팬덤계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단어다.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상품이지만, 최근엔 특정 인물이나 분야, 인물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주제로 제작된 제품, 상품을 뜻하는 단어로 통용된다.

굿즈는 프로야구 '팬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야구 굿즈의 발전은 KBO 리그의 성장 과정과 궤를 같이해왔다. 과거엔 굿즈가 유니폼, 막대풍선, 점퍼, 모자 등에 머물렀지만, 최근엔 보조 배터리, 카드지갑, 우산, 양말 등 다양한 상품이 개발·출시되고 있다.

자타공인 KBO 리그 '최고 인기팀' KIA 타이거즈도 팬심을 공략하기 위해 '신박'하고, 실용적인 굿즈를 제작하고 있다. 구단 공식 유니폼과 모자 등 의류제품부터 휴대폰 케이스, 양말, 보

조 배터리, 머리띠, 휴대용 선풍기, 슬리퍼 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굿즈를 출시했다.

굿즈계 전통의 강자는 역시 유니폼이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해 미국 애니메이션사 디즈니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유니폼을 출시해 젊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KIA 굿즈 기획을 담당하는 조민재 케이엔코리아 상품기획부장은 "유니폼은 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이다. 지난해 토이스토리 유니폼 등 캐릭터 콜라보 상품에 대한 팬들의 반응이 좋았다. 올 시즌에도 다양한 컨셉의 유니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즈니 유니폼 외에도 패션 유니폼, 광복절 유니폼, 핑크 유니폼, 러브투게더 유니폼 등 유니크한 디자인의 유니폼들이 KIA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KIA는 '가을야구 직관'을 위한 '필수템'인 춘추 점퍼와 후드티

케이스, 손거울까지..

즈(상품)의 세계



셔츠, 항공점퍼 등도 판매하고 있다. 반팔티셔츠, 원피스, 폴로 셔츠, 언더셔츠, 양털 후드티셔츠 등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실용성 만점의 의류들도 준비돼 있다. 조민재 부장은 “20대, 30대 젊은 팬분들은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의류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 평소에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패션의류들을 더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성 팬과 어린이 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굿즈들도 많다. 주로 KIA의 마스코트인 호걸이와 호연이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들이다. 롤케익 담요, 호걸이 손거울, KIA 타이거즈 모찌인형, 선수 아크릴 피규어, 호걸이 망토 담요, 호걸이 인형, 호걸이 에어팟 케이스 등이 대표적이다. 조 부장은 “여성, 어린이 팬분들은 캐릭터와 선수 이미지를 활용한 제품을 많이 찾으신다. 인형류, 어린이 야구용품, 선수 아크릴 피규어 등이 대표적

인 인기 상품이다”라고 설명했다.

KIA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굿즈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KIA 굿즈 공식 온라인 판매처인 라커디움 홈페이지에서 더욱 많은 종류의 굿즈를 살펴볼 수 있다. 시즌 오프 상품 할인도 진행하고 있어 마음에 드는 굿즈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2020 KBO 리그는 당분간 무관중 경기가 열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야구 팬들이 다시 야구장을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챔피언에서 다시 직관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나만의 ‘타이거즈 굿즈’를 장만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한국스포츠경제 이정인 기자/사진. 타이거즈숍 제공>



2020년

SNS 핫클릭

KIA타이거즈TV

Youtube 핫클릭 #1



“영건들의 맹활약, 4/2 경기 하이라이트”

50,574 459 64

Fan's comment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4월 2일 경기!
애런 브룩스의 삼진 쇼와
김규성의 멀티 히트를 감상하세요.

기아V12를위해
오늘 경기에서 오선우 선수의 홈런과 브룩스 선수의 삼진쇼! 너무 보기 좋고 재미있게 봤어요

킴니키
김현수 선수 막 처음왔을때보다 몸 커진거같은...
고런 느낌적인 느낌! 웨이트 잘하고 이번시즌 체력
안떨어지고 풀타임 무난하게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1분3
오늘 깨끗한 안타가 많이 나와서 좋았음

Youtube 핫클릭 #2



“화려한 코치 군단의 끝나지 않는 훈련시간”

43,165 638 93

Fan's comment

코치 어벤저스!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코치님들의
세심한 지도 현장을
가TV가 따라가봤습니다:)

가연
김민호코치님! 항상 응원합니다

김수아
코치님들이 이름만들어도 든든하네요

안승섭
최희섭 코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09년도 최희섭
코치님의 활약을 잊을 수 없는 팬입니다!

Instagram 핫클릭 #1



“양현종 감독 vs 임기영 감독”

3,939 130

Fan's comment

윌리엄스 감독의
제안으로 치러진 이벤트 매치!
두 감독의 드래프트 현장

violet_ice
와우~ 꿀잼 예약! 벌써부터 두근두근합니다.

jhraaaaa
이거 무조건 봐야해 ㅋㅋ 완전 원난다야 ㅋㅋ

yoyokuma
임기영은 떨고있는 포즌데어 ㅋㅋ

Instagram 핫클릭 #2



“배트가 부러져도 홈런”

3,856 39

Fan's comment

배트가 부러져도
최형우의 타구는 담장을
넘습니다!
#연습경기 #첫승
#맷동님의첫승

sports_love0621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당~ 드려 첫승이네요

won_j_90
기아 첫승 축하해요 bbbb

lebahye54
우아기아새감독윌리엄스드디어첫승!



Youtube 핫클릭 #3



“온라인 강의로 신규 용원가를 배워보자!”

👁 41,282 👍 329 💬 865

Fan's comment

어느덧 다가온 개막!
장영석, 황운호,
백용환, 유민상, 나주환의
신규 용원가를 배워볼까요?!

- 내이름은 짱**
용원가는 들으라고 있는게 아니라 직접가서 부르라고 있는건데 챔필 마려
- 김영빈**
장영석 용원가 잠실에서 떤창하면 정말 소름 돋을듯
- 뽕블리**
아니 안무가 점점 어려워지는것이 실화입니까?
다 같이 할 생각에 벌써부터 귀여워ㅋㅋㅋㅋ

Youtube 핫클릭 #4



“[선수직책] 일일감독이 된 양현종과 임기영의 선택은?”

👁 40,708 👍 818 💬 81

Fan's comment

양현종 감독과 임기영 감독의
이벤트 매치 드래프트 현장!
(박찬호, 유민상 촬영)

- hana hwang**
김주찬선수 활짝 웃는 모습에 놀라서 다시 돌려봄ㅋㅋ
- 김수아**
코치님들이 이름만들어도 든든하네요
- 안승섭**
최희섭 코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09년도 최희섭 코치님의 활약을 잊을 수 없는 팬입니다!

Instagram 핫클릭 #3



“승부는 승부 던지기!”

👍 3,385 💬 27

Fan's comment

승부가 나지 않은
양감독과 임감독 맞대결!
임기영 감독의 황금 손으로
팀 레드가 승리합니다!
#임기영명장행

- emily_seoyeon**
ㅋㅋㅋㅋ 레드팀 bbbbb
- _mindaeng**
덕아웃 분위기 ♥♥♥♥♥♥♥♥
- sumin__0816**
야구장 가고 싶은 와중에 가티비가 절 살리네요 ㅠㅠ

Instagram 핫클릭 #4



“연습경기 3연승”

👍 3,128 💬 27

Fan's comment

기분 좋은 황금연휴!
KIA가 3연승으로
연습경기를 마무리합니다!

- kia_yagu**
기아 가을야구 가져!!!
- jaehyeon801**
나비 드디어 나는건가!!!
- kcegsang789**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린 개막경기 화이팅!

TIGERS NEWS

KIA타이거즈 모바일 앱 오픈

KIA타이거즈가 구단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티켓팅 및 입장, 식음료 스마트 오더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APP) 서비스를 시작했다.

KIA는 앱과 연동된 데이터를 분석해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마케팅을 적극 펼쳐 나갈 방침이다.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는 'KIA타이거즈 애플리케이션'은 구단 홈페이지 아이디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 비회원은 가입 필수)

앱에는 영상, 뉴스, 웹진, SNS 등 구단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담겼고, 티켓 예매, 스마트 티켓, 식음료 스마트오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경기장 어디서든 식음료 메뉴를 보고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와 발권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스마트 티켓 서비스는 팬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앱은 멤버십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멤버십은 레드와 베이직 2개 등급으로 운영되며, 앱을 이용해 1회 이상 예매 및 관람할 경우 베이직, 3회 이상이면 레드 등급이 된다.

앱에 가입하기만 해도 K3석 무료 쿠폰 1매가 제공되며, 베이직 회원에게도 K3석 무료 쿠폰 1매가 주어진다.

레드 멤버십 회원에게는 선예매 혜택과 함께 K5석 무료 쿠폰 1매가 제공된다.

더불어 팬 사인회, 애국가 제창, 그라운드 캐치볼 등 참여형 이벤트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KIA는 또 무관중 홈 경기 동안 앱을 통해 경기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해, 팬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KIA 마케팅팀 관계자는 “팬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을 출시했다”면서 “멤버십을 기반으로 팬들이 선호하는 상품,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A-상무스타치과병원 후원 협약

KIA타이거즈와 상무스타치과병원(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이 후원 협약을 맺었다.

KIA는 지난 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조계현 단장과 김운규 상무스타치과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협약식을 갖고, 지정병원으로 위촉하는 등 선수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한편 KIA타이거즈는 상무스타치과병원과 광고 후원 계약을 체결했으며, 선수단은 올시즌 유니폼에 '상무스타치과' 자수 광고를 부착하고 경기에 나선다.

트로트,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코드가 되다

글/사진 현대자동차그룹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1956년 발매된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입니다. 재미있게도, 최근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세상에 나온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트로트가 나온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률 보증 수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에 몰아친 때아닌 트로트 열풍,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로서 현재 가장 뜨거운 트렌드를 분석하고 연구해온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나섰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데이터 커맨드 센터(DCC:Data Command Center)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블로그 및 카페 SNS 등에서 약 24만 건의 자료를 분석해 빅데이터 보고서 '노래를 넘어 콘텐츠로 재탄생한 2020 뉴·트로트'를 내놓았는데요. 트로트가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던 음악 장르에서 나아가 전 세대에 사랑받는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빅데이터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트로트, 그리고 새로운 트로트

트로트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트로트의 기원은 1910년대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행한 네 박자의 사교 댄스곡 '폭스트롯'이 일본의 트로트인 엔카에 영향을 주었고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국내로 유입되었는데요. 이후 남도 민요의 특징 '떨림소리'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 '트로트'라는 한국적인 음악 장르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로트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매번 지금처럼 사랑받은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왜색 논란'으로 등한시되기도 했고, 1980년대에는 관광 버스용 '뽕짝'으로 치부되기도 했지요. 1993년대 김수희의 '애모'가 주요 가요 대상을 휩쓸며 다시 전성기를 찾는 것으로 보였지만, 김현철, 신승훈 등 굵직한 발라드 가수들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으며 잊히기도 했습니다.

트로트가 대중가요로서 제 자리를 되찾기 시작한 시점은 장윤정의 '어머나'가 발매된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후 박상철의 '무조건',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박현빈의 '사방사방' 등 트로트를 부르는 젊은 가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800여 개의 전국 라디오와 30여 개의 TV 음악 프로그램, 170여 개의 케이블 프로그램 중에서 트로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3%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2019년, 트로트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트로트가 언급된 결과는 2018년 13만 5,250건에서 2019년 24만 4,150건으로 무려 1.8배나 뛰었죠. 온라인 '트로트' 총검색량은 무려 37만 9,583건으로 2018년과 비교해 10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이 트로트를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체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9년 트로트에 생긴 일

굵직한 사건들은 2019년 3월과 5월, 그리고 11월과 12월 사이 일어났습니다. TV 조선의 예능 프로그램 <미스트롯>이 신호탄을 울렸습니다. 이 채널의 평균 시청자 연령은 56세, 처음에는 중장년

층을 위한 평범한 트로트 가요 방송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미스트롯>은 성인 가요 음악 방송 형식이 아니라, 젊은 층이 열광하는 '오디션 예능프로그램'의 형식을 가져왔습니다. 오디션 예능을 좋아하는 젊은 층과 트로트를 사랑해 온 중장년층 모두 <미스트롯>의 흥미로운 시도에 흠뻑 빠졌습니다. 결국 <미스트롯>은 <효리네민박>이 세운 기록마저 꺾고 18.1%라는 역대 종편 예능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가인이어라~"라는 유행어를 남기며 진에 오른 송가인은 국민적인 트로트 아이콘이 되었죠.

11월 트로트에 다시 한번 숨을 불어넣은 후발 주자는 MBC의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뽕포유>입니다. 한국 대표 예능 MC인 유재석이 신인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데뷔하는 과정을 그렸는데요. 노래 제작 과정 등 공중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등 트로트 분야에 숨은 장인들까지 재조명한 프로그램이었죠. 두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트로트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미스트롯>의 디너콘서트는 30초 만에 전석 매진되었고, '벚꽃엔딩'으로 유명한 장범준이 유산슬의 데뷔곡 '사랑의 재개발'을 커버한 유튜브 영상은 66만 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트로트를 예능프로그램의 소재로 가져오자,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셈입니다.

모든 연령대에 사랑받는 트로트의 비밀

물론 그전에도 트로트는 꾸준히 변화해왔습니다. 단조에서 장조로, 정통 트로트에서 포크록이나 댄스가 가미된 세미 트로트로 장르 내에서 활발한 변화를 시도해왔죠. 하지만 지금처럼 음악이라는 장르를 넘어 '예능'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변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중장년층 중심의 획일적인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예능프로그램과 만나자 트로트의 소비층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트로트 콘텐츠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축제나 행사 현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트로트 공연을 공중파와 케이블, 유튜브, 음원 스트리밍 등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기존의 음악적 문법 안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출연자의 연령대도 2~30대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들은 어린 외모와 다른 성숙한 가창력, 화려한 의상과 무대매너, 그리고 흥과 끼로 무장하고 '함께 즐기는 즐거운 트로트'를 전파 중이죠. 놀라운 속도로 팬덤이 형성되며, 비교 불가 대상이었던 아이돌의 인기도 부럽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능프로그램의 재기발랄한 기획력, 플랫폼의 확대, 소비자의 시선을 뒤흔들지 않는 매력적인 아티스트의 조합이 트로트를 하나의 문화로 만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트로트는 이제 '옛날 노래'가 아닙니다. 트로트는 잠재 가치가 무한하고 어떤 방향으로든 확장 가능한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기존 소비층은 물론 10대 이하까지 트로트의 즐거운 매력에 빠져 있죠. 2020년 주류 콘텐츠가 된 새로운 '뉴 트로트', 앞으로도 무한한 변신을 거듭할 예정입니다.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한 오해, 수술 후 돋보기 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33개의 주요수술 중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받은 수술로 1위를 차지했다. 백내장 수술은 50대 이상이 비중이 높았으며,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5.9% 증가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백내장 수술을 보면서 100세 시대에는 눈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내장은 눈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대부분 노화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물체를 정확하게 보려면 수정체가 눈으로 들어온 빛을 조절해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를 조절하는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혼탁으로 인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물체가 뿌옇게 보인다.

하지만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지만 생활습관, 외부활동 등으로 인해 최근 3040 세대의 '젊은 백내장'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내장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Q. 백내장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만 발병하는 질환인가?

A. 백내장은 대개 50~60대 이상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이다. 이 외에도 태어나면서부터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선천적 백내장이 있다. 이는 유전이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다. 또한 후천적 백내장은 다른 안과질환을 앓고 있거나 외상, 감염, 자외선, 흡연 등 여러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30~40대 백내장 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디스플레이의 청색광이 수정체의 상피세포에 활성산소를 만들어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론도 있다.

Q. 백내장과 노안은 어떤 차이가 있나?

A. 환자들이 초기 백내장과 노안 증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노안은 수정체에 탄력이 떨어져 조절력이 감소되고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면서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 하지만 백내장은 가까이 보는 것과 멀리 보는 것 모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해 보이고 침침하다. 또한 햇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굴절력의 변화로 인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의 도수가 자주 바뀐다. 이는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부위에 따라서 개인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노안이라고 치부하는 등 단일한 생각은 삼가야 한다. 특히 노안이라고 오인했다가 백내장 수술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눈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반드시 안과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Q. 백내장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

A. 백내장이 발병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했다면 약물로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다. 약물을 투여해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혼탁해진 수정체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백내장을 근본적으로 완치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초기 백내장은 노안과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면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어 수술이 어려워질뿐더러 녹내장, 포도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해 실명될 수 있다. 때문에 40대 이상이 되면 정기검진을 받고 조기 발견해 적당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Q. 백내장 수술로 노안도 교정이 되나요?

A. 백내장은 환자의 나이, 질환, 눈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탁한 수정체를 초음파로 녹여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는다. 최소 절개함으로써 통증을 줄이고 회복은 더욱 빨라졌으며, 안압과 출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전성을 높였다.

환자는 수술할 때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노안까지는 교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돋보기안경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수술 후 컴퓨터나 책을 보는 등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불편을 겪기도 한다.

그에 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노안교정백내장수술은 다중 초점을 통해 별도의 안경착용 없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까지 볼 수 있게 하여 삶의 질을 높여준다.

Q. 백내장 수술 후 백내장이 재발할 수 있나요?

A. 백내장은 한 번 수술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수정체의 뒤쪽 주머니가 혼탁해 시력이 떨어지거나 뿌옇게 보일 수 있다. 이를 후발성 백내장이라고 한다. 후발성 백내장은 수술한 환자 중 10~20%에서 발생하는데 수술한 환자들이 시야가 흐릿해지고 침침해지면 다시 백내장이 발병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간단히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후 불편함이 생긴다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KIA타이거즈 지정 밝은안과21병원 나성진 원장>

가볍지만 전염은 가능한 코로나 증상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는 38℃ 이상의 고열, 가래와 같은 분비물이 없는 마른기침, 호흡곤란 세 가지를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추가하여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피로, 가래, 인후통,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이나 구토, 코막힘, 설사, 토혈, 안구충혈 등 이 바로 그 증상입니다. 최근 냄새를 감지하지 못하는 증상도 주목 받고 있지만 이는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열, 마른기침, 호흡곤란 이외의 증상이 중요한 이유는 당사자는 가볍게 앓고 치료될 수 있지만 경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넘겨받은 사람은 중증 환자가 되어 생명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2주 이상은 자가격리 상태로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1. 두통과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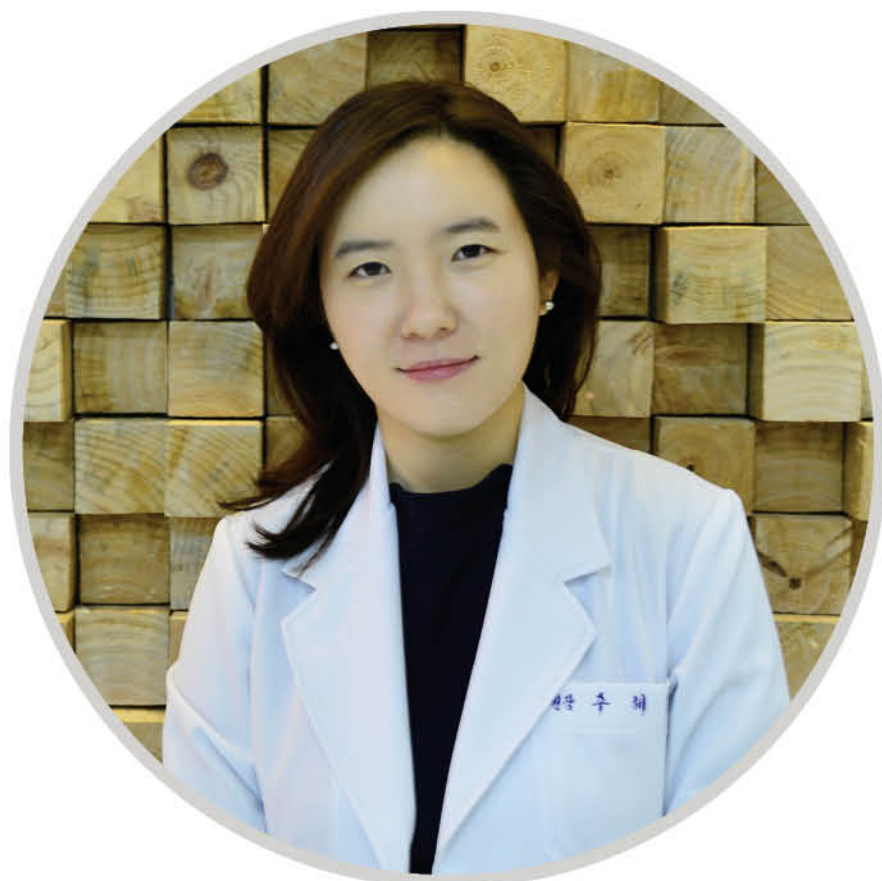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나면서 팔다리가 쑤시는 몸살 즉 근육통과 두통이 나타납니다.

2. 피로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3. 가래와 인후통

확진자 세 명 중 한 명은 가래와 인후통 증상을 호소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19바이러스는 코와 목 주변으로 침투해 점액을 분비하게 만들고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4. 후각 상실

특별한 증상 없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무증상 환자들에게 공통된 증상이 바로 후각 상실입니다. 한국 확진자의 30%가 경험한 증상으로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갑자기 후각이 둔해졌다면 격리 상태에 들어가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5. 오심, 구토,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10%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유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코에서 후비루를 통해 위로 넘어오는 오염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라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선별 진료소나 병원을 찾아서는 안됩니다. 역감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외출과 가족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서 머물며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 1,2주 이내 증상이 호전 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진단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호흡곤란, 가슴통증, 의식이 혼미하거나, 푸르스름한 얼굴이나 입술, 지속되는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바로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KIA타이거즈 공식 지정 MK한방병원 주혜정원장>

틀린그림찾기

아래 사진을 보시고 두 사진의 틀린 부분 5곳을 찾아주세요~ 5월 20일까지 홈페이지-타이거즈 웹진-틀린그림찾기(웹진 페이지 하단 / <http://www.tigers.co.kr/news/game01.asp>)에 응모하시면 모두 맞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4월 웹진 이벤트 당첨자



4월 틀린그림찾기 당첨자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Bugs!

벅스 앱을 선택한 사용자의 실제 리뷰입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중 음질은...

1월 22일



오랫동안 타 업계 서비스 이용하다가 음질의 한계를 느끼고 드디어 벅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음질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UI도 동종 업계 중 제일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벅스에게 제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앨범을 발매 시기별로 정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세요! (중략..)

잠깐 들어도 선명한 음질의 차이!

이용권이 없어도 미리듣기로 체험해보세요



기아 타이거즈 V12 기원

ANDROID APP ON
Google play

DOWNLOAD ON THE
App Store

